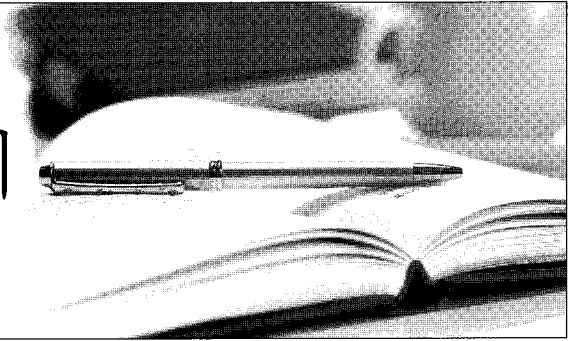


남에 대해 좋게 말하기



6.2 지방선거가 끝이었다. 전국의 1만2백여 선량들이 나름대로의 포부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오죽 하고픈 말이 많았을까? 그들의 말을 다 모은다면 백두산도 넘고 에베레스트라도 닿을 것 같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들의 옳고 이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잘 들어주어야 할 기회가 의외로 국민들에게 적다는 점이고 애써 그들의 주장을 외면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아마 그들 스스로가 서로 자신만이 옳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는지... 누구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으로 들리는 건 왜 그럴까?

닭고기는 풍부한 단백질이며 그 어느 고기에 비해서도 싸고 맛있으며 건강에 좋은 품질을 공급하는 건강 식품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백색육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면 충분한데도 간혹 다른 고기에 비해 얼마나 더 좋은지 비교하는 광고를 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우유는 젖으로서, 알은 알 그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모두 필요하고 맛있는 우리의 식품이요, 떡거리인데 굳이 내 것이 더 좋다는 식의 주장은 넓은 눈으로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포유류의 고기가 좋은지, 조류의 고기가 좋은지를 따지며 먹기보다는 육류를 선택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아니면 가격에 따라서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육류를 고를지 우유나 치즈를 고를 뿐이다.



이상희 실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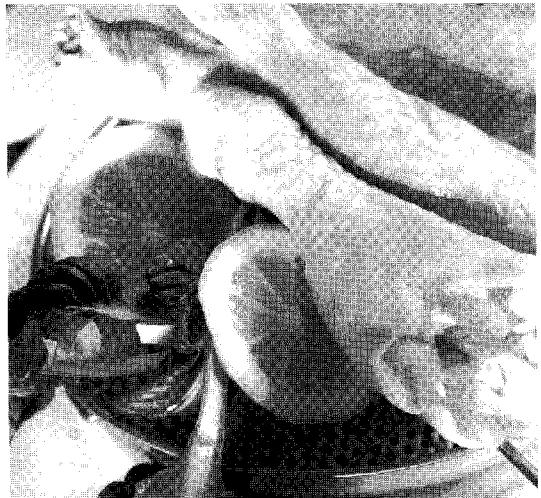
육류를 구입할 때 육질에 대해 고려하는 사항을 전국 3,011명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육색 > 마블링 많음 > 육즙 > 마블링 적음의 순으로 선택했고, 쇠고기를 고르는 이유를 보면 맛이 좋음 > 단백질 풍부 > 철분 풍부 > 스테미너 강화의 순이었다(자료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0. 4).

한우와 돼지를 비교하여 설문한 것인데 만일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과 함께 했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없으며 비싸다고 더 좋다고는 더욱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모든 고기는 좋은 것이다. 계란이나 우유 닭고기나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좋은 것이다.

지난해에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방향 연구를 위해 유럽의 일부 국가를 돌아봤고 조사 연구를 위해 일본에도 다녀왔다.

유럽의 계열화는 도계장 중심으로 통합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종계장과 사육농장들까지 3집단들이 상호 협의하에 통계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며 대등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물론 수직적 계열화와는 형태가 달라서 각 단계별로 이익을 내야 하므로 총체적인 생산비는 낮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함께 공존공영하려는 자세와 제도적인 뒷받침을 볼 수 있었다. 알은 알대로, 닭고기는 닭



고기대로 서로 단체를 만들어 정부와 파트너가 되어 원만하게 통계와 방역 등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두 단체 상호간에도 가금류 산업을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과 함께 단합하며 힘을 키우고 있었다.

이런점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그들의 병아리와 기술과 기자재, 첨가제 등을 수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자세는 일본 또한 비슷한 모습이라고 들었다.

얼마 전 육계 계열화 산업의 연구 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연구모임에서 이런 외국 사례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할 분담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연구원으로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다. 계란은 양계협회에서 맡고 닭고기는 계육협회가 담당하여 유럽이나 일본처럼 정부와 학계, 민간 기업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 파트너로 나

어떤 식품이 더 좋고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축산
식품, 그중에서도 가금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선한 방
향으로 정책이 세워져서 모두 이익을 가져가면 족할 것이
다. 이 보람된 일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남을 좋게
말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서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대표조직, 자조금 거출 등
으로 민감하던 시기며 신문지상에 성명을
내는 상황인지라 이 발언 뒤로 많은 비평의
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연구원으로서 이런 소신에는 변함
이 없다. 상호간에 불만과 불평을 나누기보
다 서로 상대의 장점을 배우고 칭찬해주면
서로 윈윈할 텐데...

상대를 깎아 내리는 것이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님은 역사가 증명해오고 있다. 더구
나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을 챙겨주
는 단백질 산업의 종사자로서 사명이 있다.

흐르는 물은 지형에 따라 자세를 낮추어
흘러가며 물길을 만들므로 대세라고 한다.

어떤 식품이 더 좋고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축산 식품, 그중에서도 가금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선한 방향으로 정책
이 세워져서 모두 이익을 가져가면 족할 것
이다. 이 보람된 일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남을 좋게 말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선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구호로 생각해 봅시다.